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1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산업진흥과	담당자 • 기업정책팀장 전정희 ☎440-4251 • 담당자 유현성 ☎440-425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원부자재 가격급등 및 수출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천5백억 원 지원

-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 3천억 원, 수출 직간접 피해기업 5백억 원 -
 - 4월 1일부터, 업체당 5억 원 이내(은행협조용자), 이자일부 1.5% 균등 지원 -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이자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화 기여 -

인천시가 원부자재 가격급등 및 수출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3천5백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 3천억 원, 수출피해 직·간접 기업에 5백억 원 규모다.

시는 지난 2월 경제인단체를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제조업체 경영인들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으나, 실제 이익은 급감해 생산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론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차차액보전 지원 사업 중 일부를 원부자재 가격급등과 수출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업들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 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은 기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간접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5억 원 이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인 1.5%를 균등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1년에서 3년 내다.

기존에 시, 군·구 등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원부자재와 수출 피해기업 중복 지원이 불가해 한 건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4월 1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

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덧붙였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로 문의(☎ 260-0621~4)하면 된다.

<사진>

사진

관련자료



< ‘21.11.1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인단체 간담회>